

주제강의: 교회 사역 안에서 여자의 섬김 Women Serving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 3

(adapted from "Report of the Ad Interim Committee on Women Serving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to the For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2017))

1. 사도 시대의 여자의 역할

1)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4:26-40 에 대한 추가 설명 Additional Considerations

- a. 바울은 왜 여자들이 예언을 하게 했지만 예언을 시험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 i. 모세, 사무엘, 이사야 등은 선지자이며 백성들 중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 ii. 그렇다면 여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b. 하지만,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항존적인 직분이나 공식적인 훈련 없이 때에 따라 나타나곤 했다.
 - i.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세레 요한 등은 종종 학대를 받았으며 존중 받지 못했다.
 - ii. 제사장들이 권위를 가지는 선생들이었다.

- c. 신약에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주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
 - i.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주된 대변인들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주된 대변인들이다.
 - ii. 사도행전 15 장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대와 실라더라 23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32 유대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1. 사도들과 장로들이 신학적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결정했다.
 2. 그들이 선지자들을 그들의 대행으로 임명했다.
 - iii. 바울도 선지자들보다 사도들이 더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사도들이 죽으면 선지자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장로들이다.

- d. 고린도전서 14 장에서는 두 가지 위험요소를 다루고 있다.
 - i. 한 가지는 여러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말하거나 어떤 이가 통역하는 이 없이 방언하는 일이었다.
 - ii. 또 한 가지는 어떤 이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한다고 잘못 주장할 때 잘못된 가르침이 퍼질 수 있었다.
 - iii. 혼란을 막기 위해 바울은 절제를 권면한다.
 - iv.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이미 말하고 있거나 방언은 있지만 통역이 없을 때 말하고 싶은 억제해야 했다.
 - v. 각 사람이 순서대로 말하여야 했다. 그리고 방언은 두세 사람만 할 수 있었다. 예언은 한 예배에 세 사람 이상 할 수 없었다.
 - vi. 거짓 가르침을 막기 위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른 이들은 분별”하여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살펴 보아야 했다.
 1. 고전 14: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 vii.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시험하는 “다른 이”들은 누구인가?
 1.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랬다면 “나머지”라는 말을 쓰지 “다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2.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와 별개의 은사였다. (고전 12:10)
 3. 하나님은 교회에 전달되는 예언의 말들을 분별하도록 선생들을 세우셨다.

- viii. 이 “다른 이”들이 왜 선지자의 말을 시험할 권리를 가지는가?
- ix. 예언을 시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거짓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세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였다. (신 13:1-10, 13:14)
- x.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었다. (왕상 22:1-37)
- xi.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 1. 살전 5: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 2.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xii.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 1.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 2. 마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 3. 딤후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 xiii. 많은 선생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
 - 1. 딤후 4: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 e. 모든 사람들이 분별할 수 알아야 한다.
 - i. 빌 1: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 f. 하지만 특히 장로들은 교회가 참된 교리로 인도되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 (행 15:1-35; 행 20:17-31)
 - i. 행 20:28 여러분은(장로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 g. 장로들 중 어떤 이들은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힘쓴다.
 - i. 딤후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 h. 목사, 교사, 설교자, 성직자, 신부 또는 어떤 칭호로 부르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하고 보호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말씀과 가르침과 분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원하였다.
 - i. 고전 12: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 i.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각 교회 안에 세웠다.
 - i. 행 14: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 ii. 딤후 1: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 j. 이러한 장로들은 남자들이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적합하나 설교나 예언을 시험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2) 디모데전서 1 Timothy 2:8-15

 - a.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14-15 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한다.

- i. 딤펁 3:14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 b. 바울의 논지는 몇 개로 정리된다:
 - i. 1:4-5, 18; 2:8, 11-15: 순전한 교리와 선한 행실
 - ii. 2:9-15; 5:1-16: 교회 안에서 성별 간의 적합한 관계
 - iii. 3:1-13: 교회 안에서 적합한 리더십
 - iv. 특히 딤펁 2:9-15 은 예배로 모인 신자들을 지도하는 목적이 있다.
 - v. 교회는 특히 예배 중에 복음 안에서 굳게 서고, 선한 행실을 보존하고, 성별에 따른 적합한 역할을 유지하고, 자격이 되는 리더들을 따름으로써 이단의 위협을 맞서게 된다.
- c. 2:9-10 - 의복 Apparel
 - i. 딤펁 2: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 ii.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라는 말은 여자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의복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할 것을 가리킨다. 비싼 옷은 높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적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었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것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 iii. 초대 교회에서는 “외적인 치장을 거부하는 것이 여자가 그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의 일부분이자 일반적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과시적 치장은 “성적인 부도덕함과 물질적 사치”를 가리켰다
 - iv. 단정함이 원칙이다. 머리를 어떤 모양으로 땡은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치장함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옮겨져서 옷을 잘 입은 예배자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 d. 2:11-12 - 배움, 순종, 허락 Learning, Submission, and Permission
 - i. 딤펁 2: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 ii. 이 본문은 자유롭게 하면서도 제제한다. 1 세기 때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교육받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 여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 iii. 유대인들의 미쉬나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자주 얘기하지 못하도록 권면한다. 악한 것을 스스로 얻게 되고, 율법을 소홀히 하며, 정죄받을 짓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 iv. 예수님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는 헬라 사상을 가진 유대인 철학자였는데 사탄이 지혜롭게 하와를 감각적으로 유혹하였고, “우리에게는 생각은 남자에게, 감각은 여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남성적인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헌신되는 반면, 여성적인 영혼은 피조물에게 헌신된다고 하였다.
 - v.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말한다. 필로의 철학을 따르거나 사람의 영혼의 능력이 그의 성별에 따라 나뉘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 vi. 누구든지 말이 많고 순종적이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자세가 갖추지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여자들에게 조용히 배움으로 순종을 나타내라고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조용히 배우는 것은 여자가

조용한 자세로 배우는 것을 보여준다. 순종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의미한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자세는 성경의 교리에 따라 여자들이 그들의 교사들을 존중함을 보여 준다.

- vii. 어떤 이들은 여자들이 충분히 배운 이후에는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딤후 2:12 에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한 것은 일시적인 금지였다고 한다. 여자들이 그들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종종 잘 교육받은 여자들은 장로나 설교자 같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견해는 부분적으로 12 절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구절을 특별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에 기인한다.
- viii. 바울이 권면은 다음과 같다. 여자들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12 절의 거의 모든 단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바울은 때때로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도록 한다. 여성지자들이 고린도에서 말하게 하고 (사역 중에 분명히 말을 하였을) 여자 동역자들을 열거한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일반적인 선을 위해 은사를 받았고 행사해야 한다고 하며 그 은사들은 말을 해야 행사가 가능하다. 바울이 12 절에서 금지하는 것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허락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여기서 금지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금지는 부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ix. 평등주의(egalitarianism)는 이 금지가 일시적이라고 제안한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임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당시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였을 때만 금지한 것이라 한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여자들이 왜 가르치면 안 되는지를 선포하는 그 다음 문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바울은 교육의 부족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언급한다. 더 나아가 어떤 부자인 여인들은 교육을 잘 받기도 하였다. 교육의 부족이 문제였다면 바울은 “여자들은 교육 받기 전에는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 x. 상보주의(complementarianism) 바울의 금지가 일시적이 아니라 부분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자는 사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때때로 가르칠 수 있었다. 브리스길라와 다른 여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교리들을 교회의 권위적인 리더들이 성도가 모인 회중에서 선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었고 남자이고 “한 아내의 남편”인 장로들, 또는 감독들에게 주어졌다.
- xi. 세 가지 요소가 바울이 오직 교리를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금지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 성경은 여자들이 가르친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성경은 여자들이 설교하거나 공적 집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묘사하지 않는다. 2) 디모데전서의 문맥상 배경은 교회의 공적 예배이다. 공적인 모임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순종을 요구하는 가르침을 주었고 그렇게 할 임무가 있었다. (딤후 3:2) 3) 바울의 언어는 여자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